

‘발등의 불’ 지방소비세... 지역 국회의원 뭘 하나

내달 법안 통과면 타지역과 재정 격차 커져 가중치 부여 등 보완책 국감서 강력 요구

정부의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을 둘러싸고 수도권 및 타 지역과의 지방 재정 격차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미온적 대응에 그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

서 지역 정치권이 국감사를 통해 가중치 부여 등에 대한 보완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30일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와 관련, 수도권

과 지방의 가중치를 100~300%로 규정한 행안부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제규모가 작고 민간소비지수가 낮은 광주·전남지역의 현실상 수도권과 타 지역과의 지방 재정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 재정 확충 효과를 타 지역과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금 점유 비율 등을 감안, 가중치를 현재의 100~300%에서 2~3단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서울 등 수도권은 가중치를 100%에서 50%로 낮추는 한편, 재정 자립도 등이 저조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300%에서 500%까지 확대해야 광주·전남지역의 재정 확충 효과가 타 지역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인기, 강기정, 이윤석 의원 등은 지난 6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도입과 관련, 별다른 추경을 하지 않아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의의 제기가 없다면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방 자립도 등이 저조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300%에서 500%까지 확대해야 광주·전남지역의 재정 확충 효과가 타 지역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된

행정안전부에 대한 확인 감사 등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년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민주당 차원에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인기 의원은 “다음 주 행정부 국감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국정감사에 이어 행안위의 법안 심사소위에서도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제동 방송 하차 외압?

손석희씨도 곧 물러나 정치권 ‘코드 인사’ 논란



김제동씨 손석희 교수

MC 김제동씨가 갑작스레 KBS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데 이어 ‘100분토크’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마저 가을 개편 때 물러날 것으로 알려지자 ‘외압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12일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문 MC 김제동 씨의 프로그램 중도 하차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진보성향의 김 씨가 KBS 가을개편에서 지난 4년간 진행했던 ‘스타골드클럽’의 진행을 맡지 않게 된 게 정권 외압이 개입된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최근 김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에서 사회를 맡은 데다 용산 철거민 참사,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게 정권의 신경을 거슬렀다는 것.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김제동 사건은 단순히 프로그램 진행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방송을 진행하게 하고 정권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퇴출시키는 언론탄압을 하는 것인지 의심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 이병순 사장은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려는 것일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KBS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떠난 윤도현씨와 KBS ‘시사토크’ 정관용씨의 하차를 언급하며 현 정권에 비판성 발언을 한 인사를 퇴출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MBC ‘100분 토크’의 손석희 교수 역시 7년간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하차 할 것으로 알려지자 외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MBC 노동조합은 12일 ‘100분 토크’ 진행자 교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손 교수 교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갑작스런 진행자 교체와 관련, 지난 봄 개편 때 한차례 휴역을 치렀던 MBC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진행자 김미화씨의 거취에도 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호성 비자금’ 축소 수사 사고 野 “특검해야” 與 “정치공세”

■ 국감 이슈

국회 국정감사 2주째를 맞아 ‘호성 비자금’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 사दन기업으로 알려진 호성그룹의 비자금 축소수사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이다.

우재창 원내대변인 12일 국정감사 중안광부가 브리핑에서 “대통령 사दन기업인 호성 그룹의 비자금 조성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가 도를 넘어섰다”며 “검찰 내부에서 불법 의혹이 짙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눈치 보기를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호성사건은 단적이고 대표적인 증후군 사건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에 집중적인 문제제기로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법사위 국감에서도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대검 호성 범죄특별 보고서’를

공개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호성총공은 1995년 한국종합금융에서 700만 달러를 빌려 ㈜호성의 대주주인 CWL이라는 회사에 대여하고, CWL은 이 돈으로 같은 해 5월 중앙플리스터의 일본 측 출자자인 아사히케미컬이 보유한 중앙플리스터 주식 95만여 주를 352억여원에 산 것으로 돼 있다.

또 호성의 서류상 회사인 CWL이 이렇게 확보한 주식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상법(자기주식 취득 금지)에 어긋난 것으로 검찰이 분석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적극 방어에 나섰다.

한나라당 장운석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정치적으로 부풀리거나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국민이 불필요한 의혹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지나치게 정치공세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안산 상록에 출마한 김영환 후보가 12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 생선을 살펴보이며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민주, 후보단일화 ‘담보’

안산 상록을 등록전 단일화 난망

10·28 재보선 격전지인 안산 상록의 야권 후보단일화가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릉 야권후보 단일화의 여세를 몰아 안산 상록에서 민주당 김영환 후보와 진보정당 단일후보격으로 나온 임종민 후보 간 단일화를 성사시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양측의 몇 차례 물밑협상에도 불구하고, 후보등록 하루 전인 12일 까지도 구체적 방법론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때문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양측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일 후보 측에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며 “조속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압박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압박에 임 후보 측은 “정치적 협상, 여론조사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민주당이 협상 지연의 책임을 떠넘기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다급한 것은 민주당 지도부. 정세균 대표의 이번 10월 재선거의 최대 승리처로 안산 상록을 꼽고 있다.

수원 장안은 당선되더라도 손학규 전 대표에게 공이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지 안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로 차이는 인정하되 승리를 위해 연합해야 한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안산 지역을 찾아 시장 등을 돌며 표밭갈이에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 대통령 지지율 54.3%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50%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리서치앤리서치(R&R)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800명(신뢰수준 95% ± 3.46%)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3%에 달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39.4%였고 나머지 6.3%는 ‘모름이다’ 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기관의 조사로만 비교하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른바 ‘촛불 정국’ 직전이던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한 것이다. 또한 달

전 발표된 한길리서치 조사의 53.8%보다도 높은 수치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38.4%로 지난달 조사에 비해 5.6%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27.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30.6%로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9.6%)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8.1%)가 차례로 2위와 3위에 올랐다. 이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4.6%, 무소속 정동영 의원 4.4% 등의 순서를 보였다.

특히 정몽준 대표의 지지율은 최고위원 시절이던 지난 1월 기록했던 3.4%보다 두 배 이상 뛰어올라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 www.hanbitgosi.co.kr

2010년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7·9급 공무원 합격의 힘!

7·9급 종합반 하루9시간 강의

단과합격특강

SHADOW고급영어, 원무원기초기초영어

국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한빛최고의 합격시스템

개강 11.2

한빛소방직전문학원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행암 234-0234

미박재학생 학원생을 위한 **올야간반**

= 호남유일 야간반 개설 =

첫개강 > 11.2

강의시간 18:00 ~ 22:00

기초부터 심화이론

체계적인 학습단계

합격 논스톱강좌

고시학원의 대표브랜드

한빛고시학원